

“韓國留學生을 환영하는 英國”

1985~1986년 영국의 대학에는 3만9천여명 폴리테크닉에는 2만4천여명의 외국유학생이 있었다. 영국 전체학생수의 10%가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왜 이들은 영국을 선택했을까?

영국은 이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조그만 섬나라이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문화적 공헌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셰스피어의 회곡이 전 세계에서 읽혀지고 있으며 영어 또한 세계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과학과 기술분야에 관한 영국의 공헌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대한 발명과 발견들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혁신과 창조적 연구정신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국에 살아있다.

뉴우튼의 중력, 플레밍의 페니실린, 다아원의 종의 기원, 와트슨과 크릭의 DNA유전인자 발견등을 생각해보거나, 혹은 산업혁명, Rutherford의 최초의 원자분리, 컴퓨터 발명을 해낸 사람들이 모두 영국인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영국인의 과학에 대한 공헌이 지대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인의 과학적 공헌이 이렇게 위대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이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발명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 駐韓英國문화원 제공 ■■■■■

예를 들어서 VTR은 원래 영국인의 발명이었으나, 그것을 개발하여 상품으로 만들어 성공한 것은 일본이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은 오래전부터 영국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으며, 영국의 학술기관들과도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Nuclear Magnetic Resonance(NMR)도 역시 영국의 발명이나 주로 다른나라에 의해 개발되어 알려진 경우이며, 영국이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발도 같은 방법으로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영국은 이러한 상황을 점차 깨닫고 있으며, 1992년 “United States of Europe”이 결성되면 영국인의 발명과 발견을 보호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영국의 과학연구는 계속 왕성하여 1988년에도 James Black이라는 의학부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냈다. 영국의 노벨상수상자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인데, 두나라의 인구나 자원을 비교해본다면 영국측의 업적은 실로 놀랄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폴리테크닉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증가

최근들어 영국의 대학과 폴리테크닉은 점차로 한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이 실로 경이로운 경제적 발전을 이루했을 뿐 아니라, 1988년 올림픽을 훌륭히 개최했음에 기인할 것이다.



한국학 학위과정 개발 확산

또한 한국학 학위과정이 영국 전역에 걸쳐 새로 개발되고 있으며, Sheffield 대학은 한국학 연구소(Institute of Korean Studies)를 열었다. 한편 최근에 와서 어느때 보다도 많은 영국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英國留學의 무료상담

영국문화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영국유학에 뜻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또한 한국과학재단(KOSEF) Post doctoral 장학금 수여자를 위하여 대학입학안내 업무를 한다.

참고로 영국으로 Post doctoral Course를 갈 경우, 한국과학재단의 장학금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영국의 많은 대학과 폴리테크닉은 실험기구나 재료등의 비용으로 인하여, 그동안 과학분야

의 학생들에게 부담되어 왔던 연구비를 폐지·감소하였다. 이 폐지된 연구비는 어떤 경우 연2백만원씩 유학의 부담을 덜어준다.

한국유학생을 위한 특별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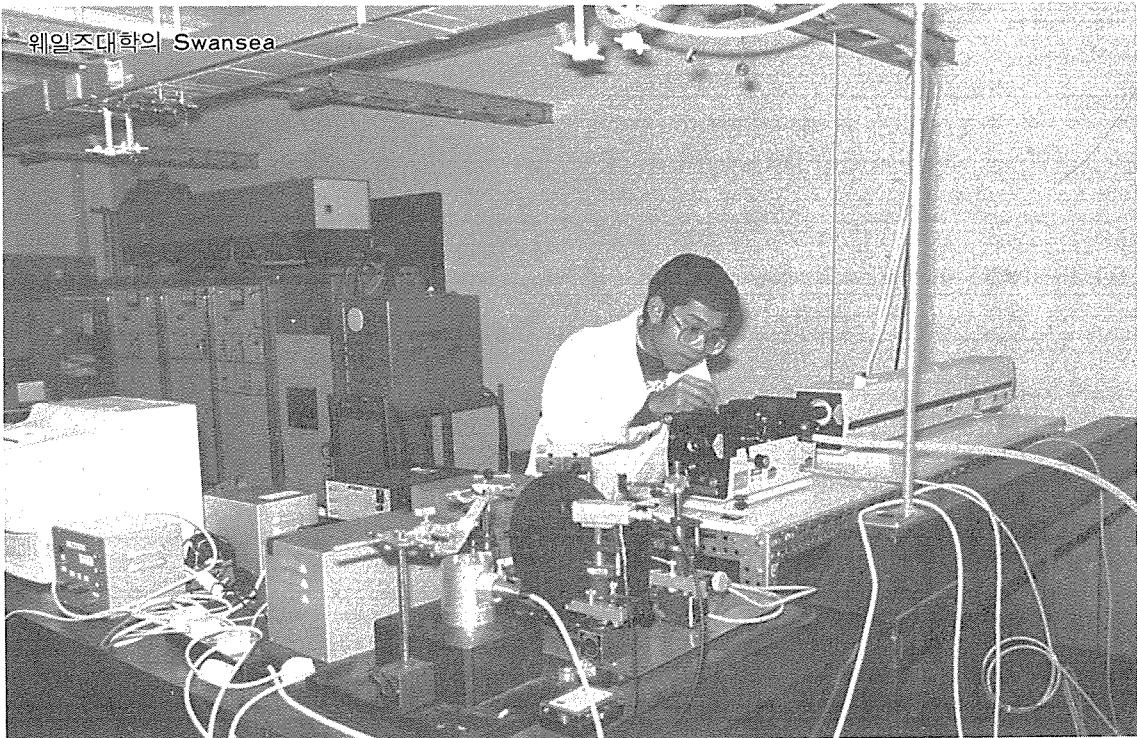
영국의 많은 대학은 Post doc. 과정을 하고자 하는 한국학생들을 위하여 입학을 환영하는 특별한 분야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Aberystwyth University

Pure and Applied Mathematics and Statistics
Physics, Earth Science, Biological Sciences,
Biochemistry.

Bradford University

Chemical Engineering,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Surface Chemistry and Catalysis,
Molecular Spectroscopy, Civil Engineering.



맨체스터대의 과학기술연구소



Cardiff University

Microbiology, Genetics, Biotechnology,
Physics, Cognitive Ergonomics, Surface Science.

Dundee University

Microelectronics, Semi-Conductors Design
Engineering Technology, Computer Science.

Essex University

Cell Biology and Immunology, Molecular
Biology and Genetics, Microbiology, Plant &
Animal Ecology, Aerosol Science, Electrode
Technology, Radionuclide Imaging Agents,
Artificial Intelligence, Information Systems,
Computer Architecture, CAD, Optical
Communications, Image Processing, Radio
Frequency System and Technology,
Lasers / Plasmas and Nonlinear Optics,
Semiconductors, Materials Science, Theoretical

Physics.

Lancaster University

Hydrology and Fluid Dynamics, Physical
Electronics, Environmental Chemistry,
Volcanology, Environmental Systems.

Thames Polytechnic

Numerical Modelling, Software Engineering,
Biotechnology, Analysis of Silicate Materials,
Optoelectronics.

UCL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Fluid
Dynamics, Ocean Engineering, Naval
Architecture, Computer Science, Biology,
Geology, Physics.

Warwick University

Bio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